+

"최근 5년간 의식주 물가 연평균 4.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8%↑ 실제물가와 체감물가간 괴리 커 주거물가 가장 큰 상승률 기록

최근 5년간 의식주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 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실제 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민생물가 상승 요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9-2024년 소비자물가지수 중분 류 항목 중 의식주와 관련되고 상승률이 높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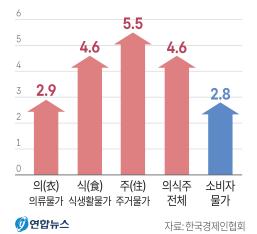
그 결과 주거와 식생활, 의류를 합친 의식주 물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6% 오른 것으로 조 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8 %)보다 1.8%포인트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민생과 직결된 의식주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 담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식주 물가 중에서는 주거 물가가 가장 큰 연평균 5.5%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어 식료품(5.2%)과 음식 서비스(4.0%), 비

의식주연평균물가상승률

2019~2024년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 단위: %



주류 음료(3.9%)로 구성된 식생활 물가는 연평 균 4.6% 올랐고, 의류 물가는 2.9% 상승한 것으 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의식주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빠르 게 오른 이유로 국제 에너지 및 농식품 가격 상 승, 높은 유통비용, 인건비 부담 등을 꼽았다.

특히 가장 많이 오른 주거 물가 중에서는 원료 수입 의존도가 큰 전기·가스 요금이 7.0%로가 근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 및 주거 관련 서비스 물가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비가 오르 며 4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식생활 물가와 관련해선 농산물 유 통비용 및 국제 농식품 가격이 상승을 이끌었다 고 해석했다.

운송비, 인건비 등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7.5%에서 2023년 49 2%로 높아졌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식량 가격지수도 2021년 이후 1200을 상회하고 있다.

옷, 장신구 등 의류 물가는 2019년부터 연평균 29% 오르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 타났다.

보고서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 의류 제조의 디지털 혁신 지원 ▲ 수입 농식품 물가의 국내 완충장치 마련 및 유통 효율화 ▲ 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 및 인근단지 공동관리 등을 통한 주거비 절감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의류 제조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해 AI 기반 정밀수요 예측으로 재고 최적화와 원 가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식료품 물가와 관련해선 농산물 중 개방도가 높은 곡물을 중심으로 수입가 상승분을 보전하 는 물가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한 주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중심 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 형광·백 열등 대신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고, 단지 간 공동관리를 통해 인건비를 감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합뉴스



'황금 사과' 맛보세요

농협유통은 껍질이 금색에 가까운 황색을 띠고 있어 황금 사과로 불리는 시나노 골드 품종 사과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모델들이 시나노 골드 품종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구매 증가에…2분기 가계 여유자금 42조 급감

1분기 92.9조→2분기 51.3조

소득 줄고 실물자산 투자 확대

올해 2분기 소득이 줄고 아파트 등 주택 구매가 늘면서 가계 여윳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금 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92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한 분기 만에 40조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2분기 (-45조6천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었다.

분기(-45조6천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

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운용) 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순조달)의 상태 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의 상여 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아 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돼 여유 자금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2분기 자금 운용 규모도 76조9천억원으로, 1분기 (101조2천 억원)보다 25조원가량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15조2천억원, 지분증권과 투자편드가 11조4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가계가 2분기 조달한 자금은 25조6천억원으로, 1분기 (8조2천억원)의 3배 이상 늘었다. 금융기관 차입이 9조2천억원에서 29조원으로 급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 (89.4%)보다 0.3% 포인트(p) 상승했다. 이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 선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 8분기 만이다.

김 팀장은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됐고 GDP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2분기 비율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 기대보다 높은 강도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같다"고 언급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 가 3조5천억원으로, 1분기 (18조7천억원) 보다 15 조2천억원 감소했다.

일반 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40조2천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국채 발행이 감소하고 차입금 상환이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이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연합뉴스

중기부, 9월 상생페이백 2천414억 지급…415만명 혜택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 벤처기업청은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천58만명이 신청했으며 9월 페이백으로 총 2천41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 (월 최대 10 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 (9월15일-10월14일) 동안 약 1천58만명이 신청했다. 지난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국민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올해 9월 소비액이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총 415만명이다.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전날 총 2천414억원 의 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천155원이다. /안태호기자

취준생 80% "일 경험 기회 부족"…회사 선택기준 1위 '임금수준'

취업 준비생 10명 중 8명은 일 경험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20-34 세 남녀 구직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취 업 청년의 취업 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7%는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 응답)으로 '업무경험 및 경력개발기회 부족'을 꼽았다.

'일자리 정보 부족'이 45.3%로 뒤이었고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 (30.8%), '학점·외국 어점수취득의 어려움' (19.6%)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에 대해선 '인턴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42.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취업 관련 지원금 또는 장학 제도' (20.7%), '취업포털·온라인 플랫폼

등의 취업 관련 정보'(20.0%) 순이었다.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선 응답자의 74.6%가 '직무관련 일 경험'을 꼽았다.

취업 회사를 선택하는 주된 기준으로는 '임금수준' (51.5%), '워라밸 등 근무 환경' (47.4%), '직무 적합성' (39.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임금수준 (54.6%), 여성은 근무 환경 (50.8%)을 좀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지도자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지도자과정	36만원 자격취득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1:1지도/2회

- ※ 파크골프지도사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 접수즉시 이론교제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